

# KIA, 육상부는 뛰고 흠치고... 베테랑은 쓸어담고

## T 타이거즈 전담대

‘연승 뒤 연패’ 징크스를 날린 KIA 타이거즈가 또 다른 연승 행진에 나선다.

KIA는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를 상대했던 지난 주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다시 4위에 자리했다.

5일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숨을 골랐던 KIA는 6일 파노니를 앞세워 두산을 상대로 9연승 질주에 성공했다.

하지만 7일 산발 7안타로 0-3 패배를 기록한 KIA는 8일 LG와의 홈경기에서는 불펜 난조 속 2-12 패를 기록했다. 연승 뒤 연패의 흐름이 일반적이지만 KIA는 달랐다.

산체스의 부상으로 인한 선발 공백 속 9일 더블헤더 일정까지 소화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KIA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주말 3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9연승을 이끌었던 뜨거운 타격은 여전했다. 3연승 기간 KIA는 최형우의 역전 만루홈런 포함 장단 41안타로 27점을 뽑았다.

베테랑 나성범과 최형우가 ‘해결사’ 역할을 해줬고, 10일 경기에서는 KIA의 기동력에 눈에 띄었다. 최원준이 개인 한 경기 최다 도루인 3개의 도루에 성공했고, 박찬호와 김도영이 두 차례, 소크라테스도 한 차례 베이스를 훔치면서 무려 8개의 도루가 기록됐다. ‘뛰는 야구’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던 시간.

무엇보다 선발 고민 속 이룬 3연승이라는 점의 의미가 있다.

KIA는 활동하-이리리-김건국을 내세워 1위 팀 LG와 주말 3연전에 나섰다.

두 명의 대체선발이 투입된 시리즈였고, 초반 제구 난조에 흔들렸던 이리리가 5회 1사에서 손가락 물집 문제로 일찍 등판을 마무리하는 등 마운드의 재 속에 만든 3연승이라 더 의미가 있다.

‘대체선발’로 나선 황동하와 김건국은 4.1이닝을 채우면서 각각 임찬규와 최원태를 상대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줬다. 또 선발 위기 상황에서 불펜진의 역투도 눈에 띄었다.

사이드암 입기경이 더블헤더 1·2차전에 모두 나와 허리 싸움을 전개해줬고, 좌완 김대유는 3연승

### 뛰는 야구로 2·3위 팀 추격

### 삼성과 대구 원정 한 경기

### 롯데·두산과 홈에서 5경기

경기에 모두 나와 힘을 보였다. 스피드를 찾은 정혜영은 9·10일 연달아 세이브를 더하는 등 5경기 연속 세이브를 기록했다.

승리를 위한 선수들의 혼신을 다한 플레이가 돋보였던 3연승, 아쉬움은 있었다. 바로 수비다.

KIA는 지난 주 6경기에서 7개의 실책을 기록했다. 기록으로 남지 않은 수비 실수도 많았다. 수비의 도움이 있었다면 황동하와 김건국도 5회를 채울 수 있었던 아쉬웠던 주말이었다.

9일 더블헤더 1차전 결승타 주인공인 박찬호와 10일 결승타를 때린 최원준도 이날 수비에서는 아쉬운 장면들을 연출했다. 수비 실수를 타격의 힘으로 만회했지만 수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 1루수 황대인의 야수 선택도 아쉬운 장면으로 남아있다.

산체스 이탈 속 이리리도 손가락 물집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선발진 고민은 여전하다. 그만큼 야수진이 좋은 수비로 투수들의 이닝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

토요일 더블헤더 이후 일요일 오후 2시 경기를 소화하는 등 체력 부담이 많았던 만큼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벤치의 전력 배분도 중요하다.

잔여 경기 일정이 시작되면서 KIA는 이번 주 삼성, 롯데, 두산 세 팀을 만난다.

12일 대구로 가서 삼성과 한 경기를 치른 뒤 홈에서 5경기를 소화하는 만큼 다행히 이동에 대한 부담은 없다. 13·14일 홈에서 롯데를 상대하는 KIA는 이후 두산과 주말 3연전을 갖는다.

특히 두산과의 대결이 중요하다.

KIA는 삼성에 9승 4패로 앞서 있지만 롯데와 7승 7패, 두산에는 4승 8패의 열세를 보이고 있다. 두산이 6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KIA와 세 경기차다. 5위 SSG와도 승차가 없는 상황.

2, 3위도 가까이 있다. 2위 KT는 2경기 차, 3위 NC와는 1.5경기 차다.



박찬호

뜨거운 내부 경쟁 속 KIA의 타격은 식지 않고 있다. 12일 파노니가 선발로 나서 17일까지 두 경기



최원준

를 소화해줄 수 있다는 점도 반갑다. 상대의 흐름을 끊는 안정된 수비까지 더해진다면



김도영

KIA가 순위 싸움에 날개를 달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테니스의 왕’ 조코비치

### US오픈 남자 단식 정상

### 메이저 최다 24회 우승

### 테니스 사상 최고 선수 ‘우뚱’

‘의심의 여지가 없는 테니스의 왕.’ (undisputed king of tennis)

AFP통신이 11일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에 대한 기사에서 뽑은 제목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끝난 US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정상에 오른 조코비치는 통산 24번째 메이저 단식 타이틀을 따내며 이 부문 신기록을 세웠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활약한 마거릿 코트(호주)가 메이저 여자 단식에서 24회 우승했지만, 그는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이후인 1968년부터 따져서는 메이저 우승 횟수가 11회로 줄어든다.

1968년 이후만 따지면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23회, 남자부에서는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22회를 기록했다.

AFP통신이 조코비치를 가리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테니스의 왕’이라고 부른 것은 역시 로저 페더러(스위스)나 나달과 비슷한 시기에 ‘빅3’로 경쟁할 이력 때문이다.

이들 세 명을 두고 전문가들은 ‘누가 더 낫다’는 논쟁을 즐겨 했고 그동안 확실한 정답은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코비치가 메이저 24번째 우승을 달성하고 나달(22회)과 페더러(20회)를 따돌리면서 이제 이 논쟁의 정답은 ‘조코비치’로 굳어진다.

조코비치는 이날 시상식에서 “7살 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돼서 언젠가 월드컵 우승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며 “내가 이렇게 24번이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12살 때 전염을 피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를 떠나 독일 뮌헨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는 등 정신없는 유소년기를 보냈다.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11일 미국 뉴욕 빌리진팅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후 트로피에 입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 시절 테니스 코트 대신 물을 뿜는 수영장이나 방공호 벽에 대고 스트로크 연습을 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그런 그가 지금은 통산 상금 1억7500만 달러(약 2335억원)를 돌파하는 톱 랭커로 성장했다.

톱 랭커가 돼서도 페더러나 나달과 맞대결할 때면 조코비치를 응원하는 팬들보다 페더러나 나달의 승리를 바라는 쪽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페더러나 나달이 워낙 팬이 많은 선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조코비치가 동유럽 출신이라 받는 차별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2020년 US오픈 경기 도중 약간 신경질적으로 처낸 공이 심상에 맞아 조코비치가 실격당했는데, 비슷한 행동을 페더러나 나달이 했더라면 실격까지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코비치는 이날 우승 후 ‘24’와 ‘맘바 포레버’(Mamba Forever)가 새겨진 상의를 입었다. ‘맘바’는 2020년 헬기 사고로 숨진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애칭이었고, 24는 그의 등번호였다.

조코비치는 “코비와는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며 “내가 부상으로 힘들 때 내게 많은 조언을 해줬고, 내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결승에서 패한 메드베테프가 “여기서 지금까지(은퇴하지 않고) 뛰고 있는 것이냐”라며 그의 꾸준함을 농담을 섞어 칭찬하자 조코비치는 “이런 역사를 새로 만드는 일은 언제나 놀랍고 특별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 광주대,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금1·은2·동7’

광주대가 제46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7개를 획득했다.

광주대 한다운(스포츠과학부 2년)은 지난 4·7일 경북 경산에서 열린 대회 겨루기 여자 -46kg급 결승에서 충북보건과학대 박수빈을 꺾고 당당히 체급 정상에 올랐다. 또 남자 -63kg급 조진기, 남자 -74kg급 김경환(이상 1년)은 각 체급 은메달을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이밖에 광주대는 남자 -63kg급 송성현(3년), 여자 -49kg급 장운선, 여자 -53kg급 김진서, 여자 -67kg급 김지혜(이상 2년), 여자 -49kg급

김예원, 남자 -54kg급 이시영, 남자 -80kg급 박태규(이상 1년)가 나란히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대 태권도부는 오는 10월에 열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3명(조하은, 임유민, 강민아)을 보낸다.

강경도 광주대 태권도부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국대회에서도 훌륭한 경기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남은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학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이민지,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 우승

### LPGA 투어 통산 9승

호주 교포 이민지(27)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민지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켄우드CC(파72·6548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더블 보기 하나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찰리 힐(잉글랜드)과 동타를 이룬 이민지는 이어진 연장전 두 번째 홀에서 버디로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약 4억원)다.

이민지는 지난해 6월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LPGA 통산 9승을 달성했다.

2021년 메이저대회 에미야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지난해 US여자오픈을 포함해 2승을 거뒀던 이민지는 이번 시즌엔 두 차례 톱10에 그치다가 15번째 출전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민지는 현재 출산 휴가 중인 박인비와 오래 호흡을 맞췄던 캐디 브래드비치(호주)와 이번 우승을 합작했다.

이민지는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



호주 교포 이민지가 11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켄우드CC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 트로피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었으나 그렇지 않았다. 동타가 꽤 이어졌다. ‘끝까지 하자, 어디서 끝나는지 보자’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모든 샷에 최선을 다했고, 연장전 승리로 이어져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